

제주서초 '화수분 축구' 뿌리 내려

올 차범근 축구상 수상자에 오대준 이름 올려
2018년 선수·감독 수상... 2020년엔 2명이나
지난해 소년체전 4회 연속 메달 등 금자탑도

'축구 명가' 제주서초등학교가 올해도 차범근 축구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최강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7일 제주도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차범근축구상위원회는 최근 심사를 통해 제주서초 오대준(사진·전북 금산중 입학 예정) 등 유망주 18명(남 16, 여 2)과 감독 1명 등 19명을 제35회 차범근 축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1988년 제정된 차범근 축구상은 매년 꿈나무를 발굴해 시상하는 유소년 축구상으로, 그동안 이동국(4회), 박지성(5회), 최태욱(6회), 김두현(7회), 기성용(13회) 등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수상자는 남학생인 경우 오

대준을 비롯 송정준(순천중앙초), 김윤재(양산유나이티드FC), 정인서(포철초), 강시우(진건초), 윤선웅(양산유나이티드FC), 김동현(양주시유소년축구클럽), 엄규현(대동초), 정우진(울산현대U12), 배호진(비산초), 권준서(세종김영후FCU12), 김우진(신답FCU12), 이호영(진건초), 임지성(이리동꽃밭스포츠클럽U12), 이주찬(서울 FC은평U12) 등 16명이다. 최우수 여자선수상은 전아현(서울 K리거강원FC)과 이소미(남강초)가 받는다. 오대준은 앞서 축구 국가대표 육성 프로젝트인 '골든일레븐' 베스트11에 선정돼 네덜란드 아약스로 연수를 다녀

왔으며, 이번 축구상을 수상하면서 '팀차범 독일 원정대' 자격으로 독일프로축구연맹(DFL)의 도움을 받아 선진 축구 문화를 경험하는 독일 원정을 오는 7월 떠난다.

앞서 제주서초는 2018년에 홍승연(울산 현대고·16세 대표)이 수상의 영예를, 김승제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는 경연사를 누렸다. 또 2020년에도 한석진(전북 영성고·권역특점상)과 조민협(서울 오산고·왕중왕전 우승) 등 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차범근 축구상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서초는 지난해에도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4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으며, 전국초등주말리그 제주권역 11년 연속 무패 우승(132경기 116승 16무, 716골 59실점)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또 전국초등주말리그 (왕중왕전) 꿈자람 페스티벌 7그룹 준우승도 차지했다.



차범근 축구상 수상자로 선정된 오대준.

제주서초 출신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었다. 고승범(49회)이 A대표팀으로, 김문성(57)은 U23 올림픽대표로 뽑혔다. 김승현(61회)은 U16 청소년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고봉조(57회)는 일본 J리그 사간도 스템에 입단하는 등 서초의 명성을 알렸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손흥민, 6년 연속 '아시아 최고 선수'

'아시아 골든 글로브 어워드' 통산 8번째 수상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 4위
손흥민(31·토트넘)이 중국 스포츠 전문 매체로부터 6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로 뽑혔다.

중국 티탄저우바오(영문명 타이탄 스포츠)는 6일 손흥민이 '2022 아시안 골든 글로브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7년부터 6년 연속이자 통산 8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 앞서 손흥민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수상했다.

이 상은 티탄저우바오가 프랑스

국가나 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기록한 손흥민은 가장 많은 256점(26.7%)을 받았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득점왕을 차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란 대표팀의 매흐디 타레미(포르투)가 120점(12.5%)으로 2위를 차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렘 알 도사리(리야드)가 112점(11.7%)으로 3위에 올랐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 김민재(나폴리)는 99점을 받아 4위를 차지하면서 한국 선수들이 '톱 10' 안에 2명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될성부른 떡잎' 김지혁 업그레이드

KBO 유망주 '넥스트-레벨 트레이닝 캠프' 참가
8일부터 28일까지 서귀포에서 기량향상 등 훈련

'될성부른 떡잎' 김지혁(사진·제주 제일중 졸업, 제주고 입학 예정)이 고교 입학 예정 유망주들을 위한 KBO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한다.

KBO는 8일부터 서귀포에서 '2023 KBO 넥스트-레벨 트레이닝 캠프' 2차 훈련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캠프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서 선발한 고교 입학 예정 우수 선수 30명(11개 시도 21개교)이 참가한다. 참가명단에 김지혁이 당연히 이름을 올렸다.

제주고 팀에 합류해 훈련중인 김지혁은 지난 3월 열린 소래고와의 연습경기에서 9회 결승타를 작렬시키는 등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유망주이다. 또 제일중 3학년이던 지난해 제52회 대통령배 전국중학야구대회 16강 진출의 주역이기도 하다.

이 캠프는 기술 습득 및 훈련 효과가 높은 중학교 3학년 유망주 선수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훈련 공백기에 프로 출신 지도자들의 우수한 코칭과 바이오메카닉스 장비



를 활용한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야구 기량을 대폭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KBO는 강학구장 실내연습장에서 3D 동작 분석, 지면반력/무게 이동 측정, 키네마틱 시퀀스 분석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바이오메카닉스 측정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선수 개개인이 운동역학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고 최선의 운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선수들은 캠프 종료 시점에 다시 측정해 자신들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수치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전국 유소년농구·체조선수권 개최

도, 올해 종목단체 128개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스포츠대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3년 종목단체 128개 스포츠대회·행사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개최되는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는 총 128개(국제 19, 전국 34, 도내 75)이며, 상반기에만 56개가 열릴 예정이다.

국제대회는 파크골프, 테니스, 배구 등 10개 종목단체·19개 대회가 연중 개최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전 세계에 '스포츠 메카 제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국대회는 축구, 골프, 야구, 마라톤, 테니스 등 13개 종목단체·34개 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도지사배 전국유소년 농구대회와 전국종별 체조선수권대회는 신규로 유지를 도내 대회는 검도, 농구, 볼링, 씨

름, 수영 등 35개 종목 단체·75개 대회가 개최돼 2만 1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스포츠대회·행사를 위한 포괄보조금사업을 추가 발굴해 다양한 스포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포괄보조금사업을 통한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외에도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회, 비영리단체, 언론사대회 등 32개 종목·76개의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도내 곳곳에서 개최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대회·행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조상윤기자



1라운드 "맹"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NHL(북미 아이스하키리그) 뉴욕 레인저스와 캘거리 플레임스의 경기에서 뉴욕의 제이콥 트루바(오른쪽)와 캘거리의 타네프가 스틱을 던져두고 거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 /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날개 달린 품격여행

예약폭발
마감임박!

BEST

봄맞이 꽃구경 패키지



01

산수유/매화 봄꽃 여행

3/17 2박3일 **581,000원**



02

하동 벚꽃 여행

3/31 2박3일 **574,000원**



03

돌립축제/퍼즐섬

4/14 2박3일 **523,000원**

01

베트남 다낭 3박5일

4/28 출발

1,290,000 원

(5성급 관광패키지)

02

오사카 3박4일

매일 출발

780,000원~

03

타이페이/야류/저우펀+101빌딩 4일

3/7, 3/15, 3/21 3/11, 3/18

평일/출발 토/출발

829,000원 869,000원

04

제주 출발 싱가포르 여행

싱가폴/바탐 5일

(3/1, 3/8, 3/15)

1,390,000원

05

라오스 3박5일

4/12

1,290,000 (관광)

06

태국 치앙마이 3박5일

3/23 출발

1,290,000원

골프 1,750,000원

IATA **공/통/사/행**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정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솔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황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